제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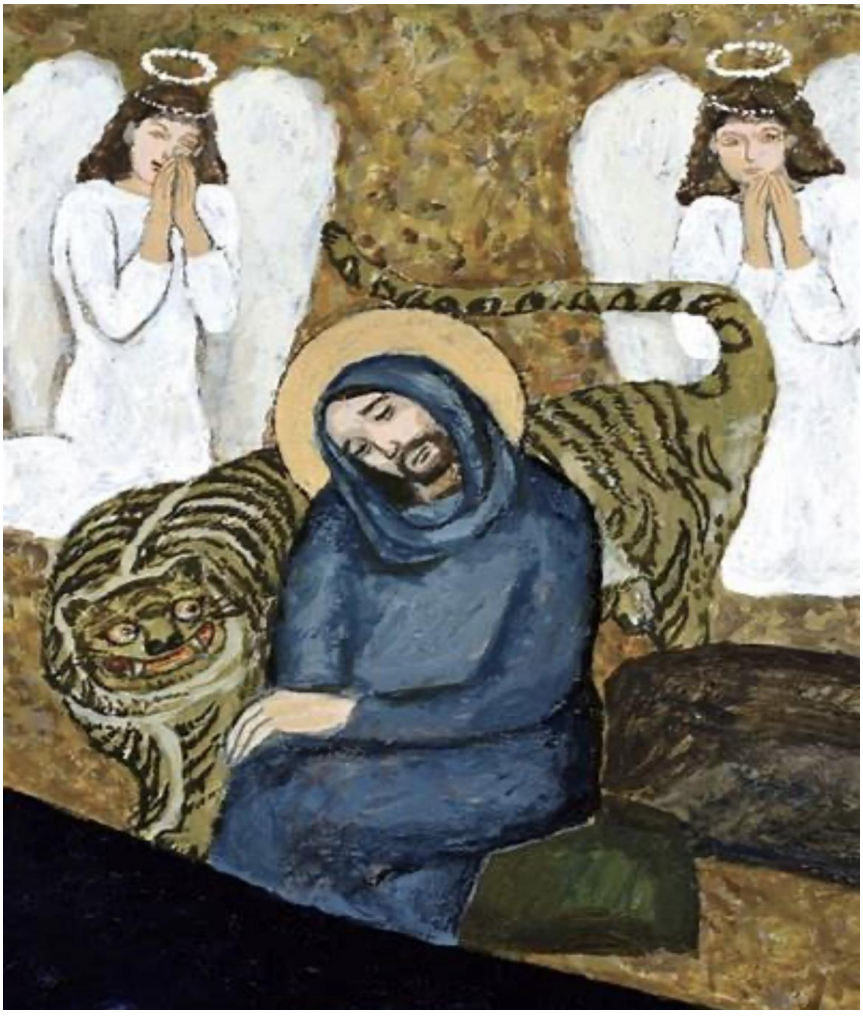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사순 제1주일 (2024년 2월 18일)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마르코 1,13)**



‘회개의 시작인 사순절' |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출처: 굿뉴스 가톨릭 갤러리)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코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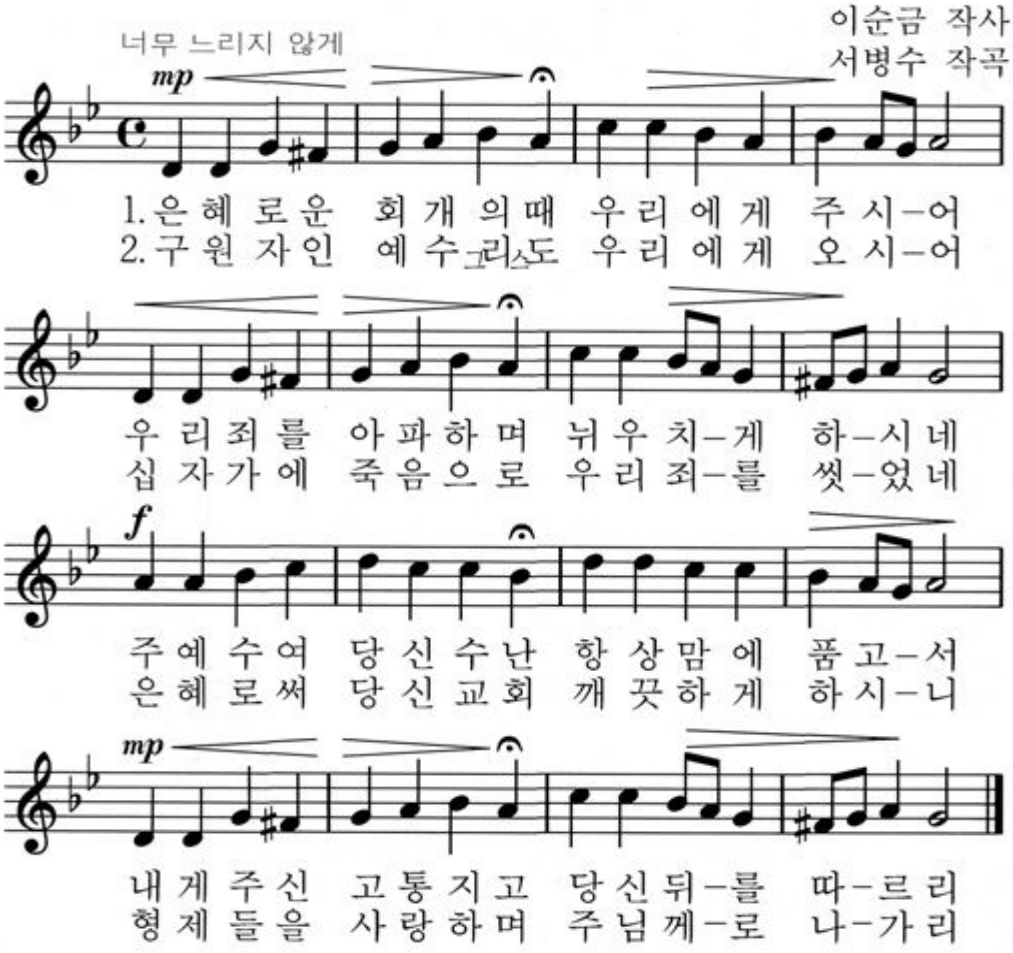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24번 '<u>은혜로운 회개의 때</u>'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사순

은혜로운 회개의 때 124

이순금 작사
서병수 작곡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창세 9,8-15)**

8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10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11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13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14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15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스도의 승리 **(1베드 3,18-22)**

18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19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여덟 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1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 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2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마르 1,12-13)**

그뒤에 12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마르 1,14-15)**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별을 보고 길을 떠나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처럼, 나는 그 별을 내 마음에 품으며, 지금 나의 삶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고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AA2]
-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AA2]
- 우리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깊이를 성찰하며, 성경통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BL1]
-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들이 주님께 경배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사랑, 관심, 칭찬, 배려, 신뢰의 덕목을 각자의 삶에서 묵묵히 실천할 때 주님의 마음은 두근거리고 벅차오르리라!' 확신합니다. [CT]
-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미사를 떠올립니다. 찬양, 기도, 봉헌으로 우리는 앉아서 주님께 경배하지만, 앞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CT]
-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 마음은 빛과 어둠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느님께 오롯이 의탁하며 살아가다 보면 빛이신 하느님을 만나 뵐 그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NV1]
-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온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서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V1]
- **"빛을 향하여"**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이가 들수록 겸손하지 못한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을 반성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과 행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NV2]
-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말씀으로 기도하며,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희로애락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생각했고, 주위를 한 번쯤 둘러보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NV2]
- **"기쁜 빛으로 가득"**이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의 직장, 가정, 성당, 모든 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NV2]
-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는 늘 일상에 기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RC1]
-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말씀으로 기도하며, 요즘 기쁜 마음을 크게 못 느끼며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RC1]
-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하느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을 다지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TR4]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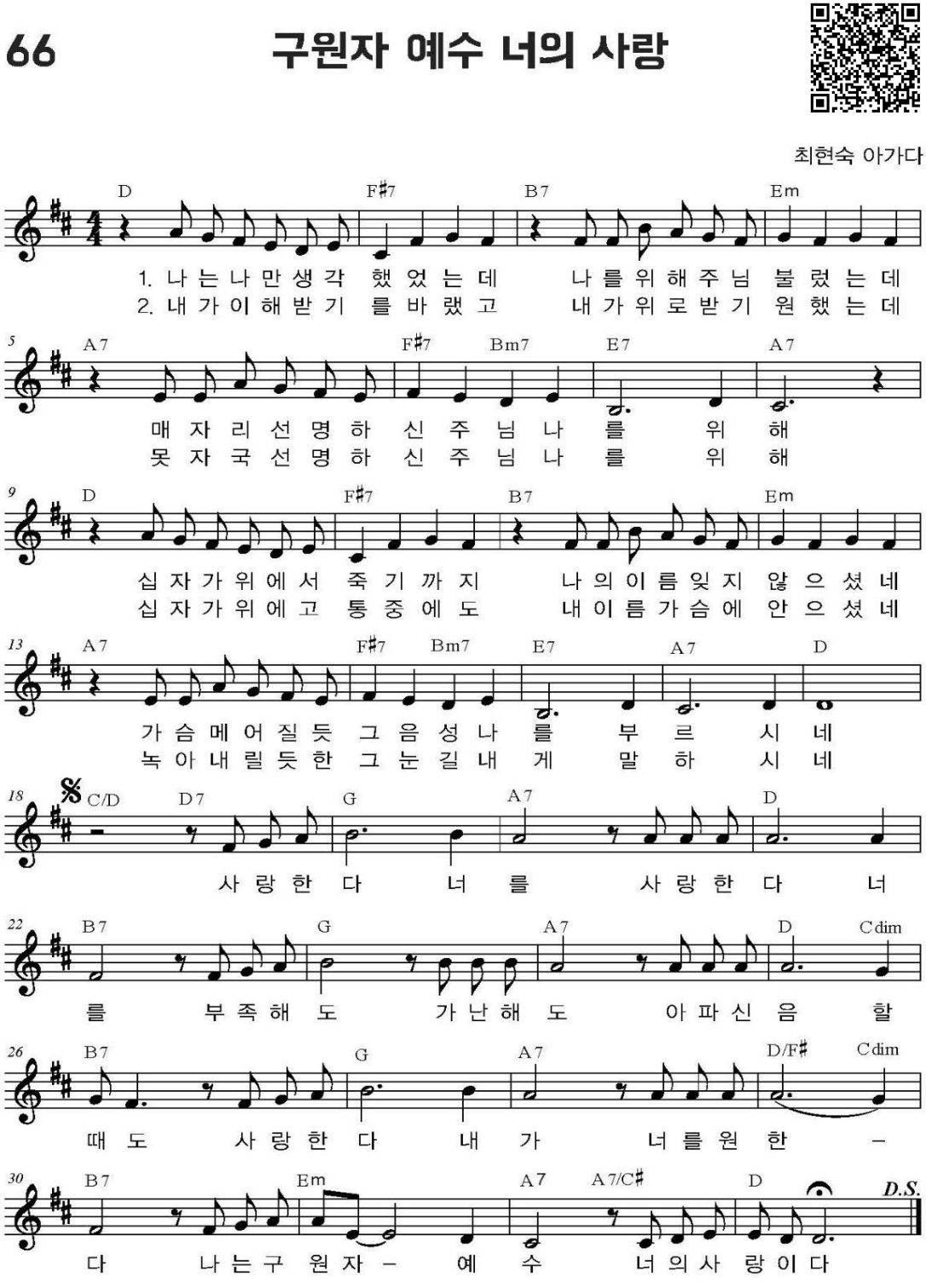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 성가 셀라책 66번 '<u>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u>'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재의 수요일

겸손→성찰→회개→자신의 비참함 인식→이웃 사랑의 실천

또다시 재의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사제는 교우들의 머리에 재를 얹으면서 외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다시 맞이한 사순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어떤 분에게 회개 좀 하라고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의 덕을 지닌 사람에게 성찰의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찰이라고는 단1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반대로 틈만 나면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의 현실을 성찰하고, 부조리하면서도 고통스런 현실을 성찰하고, 다양한 사건 사고를 성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찰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없이 살아가는 한 인간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자연스레 그의 시선은 자신보다 더 비참한 동료 인간의 현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의 고통, 그의 상처에 깊은 연민과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레 도움의 손길, 즉 자선을 펼치게 됩니다.

겸손→성찰→회개→자신의 비참함 인식→이웃 사랑의 실천, 바로 이 사순시기 우리 내면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여정입니다.

양승국 스테파노 신부, 살레시오회

2024 성경통독 월례모임
말씀과 함께

-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기도의 의미와 공부(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느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이며 믿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 3장 9절 “너 어디 있느냐?”라는 구절을 묵상하며, “전에는 나와 같이 있었는데 이젠 왜 나와 떨어져 있느냐, 나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왜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 쉼이라는 요소 안에 숨은 창조주의 돌보심과, 유형 무형한 피조물들이 쉼 안에서 회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혼돈에 휩싸여 있던 태초의 무질서에서 창조주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의 상태로 움직이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 11장 ‘바벨탑’ 이야기는 신화적 이야기로서 유다 민족들이 바빌론 유배중에 그곳에서 지구라트를 목격하고 그것을 하느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 언어의 이질성,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느님 뜻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우울하고 가라앉은 저의 마음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조금이나마 살아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분만은 저에게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지만,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저에게 작은 파문을 일으켰던 한 달 동안의 성경통독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전하신 사랑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주변에 베풀고 그분께서 바라시는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가면서 성경통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이 모여진 나의 미래가 지혜로운 인생이 될지, 저주받은 인생이 될지는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의 “자유”라는 이름의 선택 말입니다.

- 창세기 저자는 하느님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고유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으며, 하느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하십니다.

-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심에는 당신의 모습대로 살라고 하는 뜻이 있었지만, 인간의 교만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닮은 이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이끌어(구원)주고 계십니다.

- 신부님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방향으로, 고대의 세계관으로 창세기를 읽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객관적 시각이 생겨났고 그동안 주관적으로, 또한 나의 체험적 해석으로 읽어왔던 성경이 새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이해의 한계가 조금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사람의 존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귀한 생명을 가진 '나'와 '너' 사이에서 서로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등으로 인해 나에게 무게중심을 더 둘 때일 것입니다. 모든 이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제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통해 배우며 내 안에 나 중심적인 힘들을 내려놓습니다.

-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해 소금기둥이 되어 버린 롯의 아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 신부님 강의 내용 중에, "하느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내용이 많이 와닿았으며, 정의로움이 오히려 과하면 공포가 된다는 내용은 삶에 큰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한계 속에 머물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 생명과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하늘나라', '하느님께로' 입니다. 하늘나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며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 믿음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나를 하느님께 내어드린다는 나의 소신이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맡기는 것"이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엔지니어로 30년 이상 살아온 저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다음 믿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점은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의심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 말씀처럼 창세기의 내용은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 집중해서 이번 성경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 하느님은 인간의 윤리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윤리는 종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윤리를 넘어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초라하고 희망 없는(하느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하느님 뜻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 살아가면서 한 번씩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들 때 여지없이 드는 생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처음, 첫 시작, 한처음, 설렘과 기대와 열정이 가득한 그 시간 속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처음은 그렇게 한 번만 찾아오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이 한처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이 영원이 되었다는 말처럼 한처음의 그 순간과 지금의 한처음이 연결되어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매 순간이 한처음인 지금을, 현재를 소중히 살아야겠습니다.

-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수치심은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나의 수치심이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사라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 약속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 "내 계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상, 태어난 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느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과 세우신 계약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께서 세우신 계약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성경공부를 할 때면 항상 초심은 단단하여 창세기 부분은 올곧이 읽고 하느님을 이해하는 첫 관문에서 많은 다짐을 했었으나, 이후 나태함과 자신과의 타협으로 인해 끈기있게 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달라져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봅니다.

- 제가 창세기를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창세기의 지은이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며 이 글을 썼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그의 철학적인 논제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절한 긴장감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은 저에게 하나의 역사서이자 교훈서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이는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겉보기엔 그 타당성을 신에게 받은 계시로서 무마하려는 듯 불친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읽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뜻을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부모 자식간의 인의와 부부간의 인의를 말해주며 시작된 이야기는 자신의 전부였을 하나뿐인 아들 이사악을 하느님께 바치려 한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제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 결국 나의 존재도 하느님의 것이며, 그 이유 또한 주님의 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